

여름 출하를 앞둔 봄철 자돈(仔豚) 관리는 이렇게



김인호 교수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름 출하를 앞둔 자돈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다. 우선은 자돈의 성장율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소모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유 스트레스에 따른 이유 후 성장정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율이 높은 원료가 사용된 사료 급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자돈사 돼지는 “복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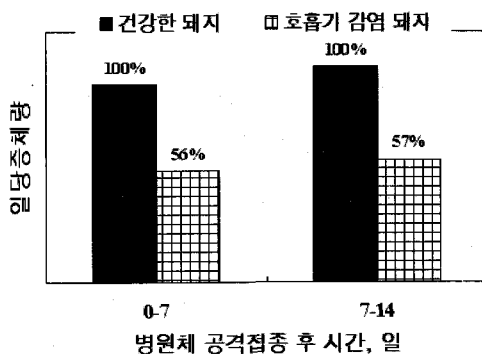
연초부터 강세 속에 시작된 지육 단가가 1월에는 전국 시세 기준으로 3,870원을 기록하였으며, 2월에는 3,896원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양돈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5년 상반기 돈가 예측을 보면 평균 지육 단가 4,000원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고 있어, 양돈 농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고돈가 행진은 4-6월 사이에 가장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이 시기에 “출하 할 돼지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돈가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금년 4-6월달에 출하 할 돼지가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04년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유사산이 금년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PMWS (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나 PED (돼지 유행성 설사증)에 의한 폐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결국에는 농가에 4-6월에 출하 할 돼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 농장 자돈사에 있는 돼지는 쉽게 표현해서 “복돼지”라 표현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농장 수익성을 책임져 주는 가장 중요한 돼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돼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PMWS를 잡아라

(그림 1) 호흡기 질병 감염이 자돈 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지금 농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MWS와 같은 소모성 질병에 의한 위축 및 폐사율 증가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나타나는 PMWS는 주로 PRRSV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나 기타 호흡기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성 바이러스 혹은 박테리아에 의한 복합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호흡기 질병 감염을 감소시키면 PMWS 증상 발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4주령 자돈에게 호흡기 질병을 유발시키는 병원체를 공격 접종한 후, 7일과 14일째 되는 날에 측정된 성장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돈이 호흡기 질병에 감염되면 성장율이 40% 이상 감소하며, 체조성의 경우 건물과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성장 반응 및 체조적 축적은 이후 젖돈 및 육성돈 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출하 일령 지연은 물론 체조성 변화에 따라 도체 성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돈 건강을 위한 세가지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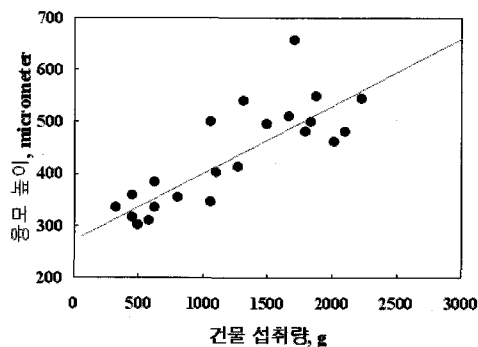
지금부터는 자돈을 이러한 소모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몇가지 사양 관리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이유 후 적극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이유 후 성장 정체 현상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8일령이 지나도 자돈의 위장 크기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 및 이용성이 매우 높은 사료원료의 선택과 급여가 필수적이다. 표 1은 사료 영양소 소화율에 따라 사료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주고 있다.

〈표 1〉 소화율이 사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

사료 영양소 소화율, %	사료 섭취량, g/일
85	433
80	325
70	260

다시 말해서, 자돈은 이유 후 7-14일까지는 위장 용적이 크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소화율이 높은 원료로 배합비 자돈 사료 급여를 통해 일일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유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 섭취량 감소와 이로 인한 적절한 영양소 공급 부족으로 소장 내 용모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섭취하는 사료의 소화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설사증으로 발달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섭취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사료 급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그림 2. 건물 섭취량이 소장 내 용모 높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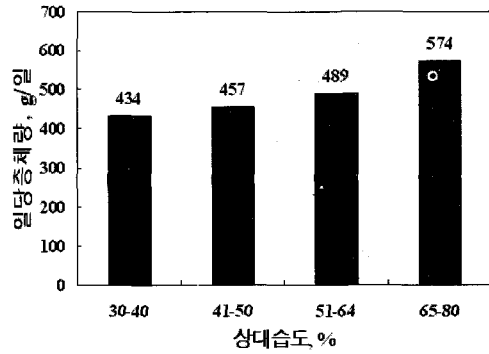
두번째는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돼지에 있어 사료와 물 섭취 비율을 1 : 3 정도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충분히 먹지 않고서는 사료를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물 섭취와 관련하여 축산 시설 기자재 업체를 방문해 보면 많은 편리한 시설을 판매하고 있다. 권장할 만한 것은 건식 급여기와 그 옆에 급수 장치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원형 습식 급여기를 설치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수기 설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이며,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함께 수시로 니플을 점검하여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봄이 중국에서 황사 바람이 불어오면서 본격적인 환절기가 시작된다. 황사에는 미세한 먼지 입자와 함께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환절기는 동절기와 더

불어 대기 중의 습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세번째 중요 사양 관리이다. 돼지에 있어 습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기 중 습도가 낮으면 점막이 건조하게 되는데, 점막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항상 끈적끈적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먼지나 병원체 침입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기 중 습도가 낮으면 점막이 건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막에서 여과 작용 없이 미세먼지나 병원체가 호흡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돼지는 소모성 질병에 감염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은 여름 출하를 앞둔 자돈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건인가이다. 우선은 자돈의 성장율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소모성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습도 관리가

그림 3. 습도가 돼지의 일당증체량에 미치는 영향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이유 스트레스에 따른 이유 후 성장정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율이 높은 원료가 사용된 사료 급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㉟

